

텅 빈 전통시장 '울상'...북적 백화점·대형마트 '희색'

르포-폭염이 불러온 유통가 양극화

말바우시장 손님 평소 10% 수준
채소·생선 등 시들고 상해 이중고
광주·전남 시장 경기지수 최하위
광주신세계, 롯데마트 수완·월드컵점
폭염경보 10일간 매출 크게 늘어



지난 4일 오전 10시께 말바우시장이 장날임에도 한산한 모습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어휴, 이렇게 더운데 누가 장을 보러 나오겠어.”
지난 4일 오전 10시께 광주시 북구 말바우시장은 ‘장날’ 분위기가 나질 않았다. 광주 대표 시장 중 하나인 말바우시장은 장날이면 인근 대로변 일대에 교통체증이 빚어지고, 시장 내부엔 수많은 인파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붐비곤 한다.
하지만 이날 폭염경보가 발효되는 등 극심한 무더위 탓에 평소 인도를 가득 메웠던 노점상인들은 물론, 장을 보러 나온 손님들도 평소의 10분의 1 수준 밖에 되지 않아 한산하기만 했다.
시장 입구에 노점을 벌려놓은 한 상인은 가져다온 고추와 고구마 등 상품들이 햇볕에 상해버릴까 파라솔을 이리저리 옮기며 그늘을 만들었다. 정작 본인이 앉아 있을 그늘이 없자, 바로 앞 농협은 행 처마 아래 쪼그려 앉아 더위를 피했다.
수십 년째 채소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박모(여·72)씨는 “더위도 너무 더운 데다, 휴가철이 겹쳐서 그런지 요즘 손님들이 크게 줄었다”며 “장사를 하려고 내놓은 채소들이 더운 날씨 탓에 금방 시든다.

일부러 판매할 물량을 적게 준비해왔는데, 이것도 다 팔긴 힘들 것 같다. 여러모로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시장 안쪽으로 더 들어가자 생선가게들도 눈에 들어왔다. 기다리는 손님이 오지 않아 상인들은 선풍기 앞에 앉아 더위를 쫓으려 애썼다. 그들의 얼굴엔 수심이 그득했다.
생선가게 주인 김모(여·51)씨는 “생선은 더위에 취약해 얼음을 자주 갈아줘야 하는데 워낙 더위 얼음을 사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얼린 이 더위가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푸념했다.
전통시장과 달리 백화점은 더위를 피해 찾았으나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6일 오후 1시께 광주시 서구 광주신세계 본관 지하 3~4층 주차장은 주말을 맞아 고객들이 몰리면서 ‘만차’와 ‘주차가능’ 상태를 오가며 주차난이 반복됐다.
본관 지하 1층 식당가로 올라가자 자리를 찾아 헤매는 고객들 사이에서는 앉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눈치 싸움’마저 벌어졌다.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과 이동하려는 사람, 앉을 자리를 찾기 위한 사람들의 동선이 맞물리면서 혼잡했다. 이밖에 의류와 식품 등 다른 판매 매장 역시 몰려든 손님들로 북적였다.
부인과 함께 어린 아들을 데리고 백화점을 찾았다는 최모(31)씨는 “무더위에 아이를 데리고 갈 만



6일 오후 광주신세계 지하 1층 식품관이 더위를 피해 찾았으나 손님들로 붐비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한 곳이 없고, 전기료 부담이 커서 집에서 마음 편히 에어컨도 틀 수 없었다”며 “더위를 피해 시원한 백화점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왔다”고 말했다.
광주에 13일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가마솥 더위’가 계속되면서 냉방시설이 취약한 전통시장은 어려움을 겪는 반면, 대형 판매시설들은 매출이 증가하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날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폭염특보가 발효되기 시작한 지난 달 25일부터 3일까지 10일간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 이상 증가했다. 이밖에 롯데마트·아웃렛 수완점과 월드컵점의 매출도 같은 기간 10% 상당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다르게 지역 전통시장은 극심한 침체에 빠

졌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7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 지역 전통시장의 체감 경기지수(BSI)는 34.7로 전월 대비 3.1포인트 하락했다. 전남은 전월 대비 무려 15.1포인트 급감한 32.9로 파악됐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전남은 전북에 이어 최하위인 16위, 광주는 15위를 기록했다.
BSI 100 이상은 경기 호전, 100 미만은 경기 약화를 의미하는데, 불경기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체감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효성-KOMERI 친환경 선박 전력변환장치 공동개발 나섰다

컨버터 등 기술 개발 업무협약

㈜효성이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과 함께 친환경 미래 선박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시작한다.
㈜효성은 KOMERI와 전기추진 선박용 전력변환장치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관의 ‘친환경 선박 전주기 핵심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MW급 대용

량 전력변환장치(드라이브, 컨버터)의 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효성은 다양한 하이브리드 전기추진 선박에 탑재 가능하도록 모듈 병렬구조의 3MW급 선박 추진용 대용량 드라이브와 1MW급 ESS용 대용량 컨버터 개발을 담당한다.
㈜효성은 KOMERI와 협업을 통해 친환경 하이브리드 전기추진 선박용 드라이브 및 컨버터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기술 역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최원호 ㈜효성 중공업연구소장은 “이번 MOU

를 통해 국내 친환경 선박용 전기 추진 시스템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효성중공업의 다양한 제품군이 해양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효성은 창업주부터 조현준 회장까지 이어진 기술경영 철학으로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자체 기술을 확보해오고 있다. 기술경영 철학에 따라 ㈜효성은 1971년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기술연구소를 설립한 데 이어 1978년 중공업 연구소를 세운 바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잇단 칼부림 사건에 광주 유통업체들 방호 강화

보안직원 가스총 휴대·경찰과 핫라인

도시 곳곳에서 칼부림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역 유통업체들도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칼부림 사건이 백화점과 같은 유통인구가 많은 곳에서 발생함에 따라 고객 안전 강화에 나섰다.
6일 지역 유통업체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 4일부터 평소 정장 차림인 보안업무 담당 직원들이 방범복을 착용하고 근무하기로 했다. 가스총과 3단봉을 휴대한 보안 직원들은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지역 관할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하

는 등 비상 연락체계를 강화하고 비상상황에 신속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주요 출입구에 보안 근무자를 배치하고, 매장 순찰을 강화한다.
순찰 근무자는 고객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 방범복을 착용하고 삼단봉과 무전기 등 소지하기로 했다. 또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거동이 수상한 이에 대한 실시간 감시 등 CCTV 상황실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강력 범죄 대응 매뉴얼을 공지하고 본사와 사업장 간 실시간 비상 보고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고병일(왼쪽) 광주은행장이 최근 광주은행 지역사회봉사단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해 광주시 '시민참여형 광주천 가꾸기' 사업 부지 내에 있는 광주은행 특별관리구역에 조성된 꽃길에 물주기 작업을 펼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플로깅-쓰담달리기' 봉사활동

광주천변 조경하며 쓰레기 줍기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광주시 서구 동천동 광주천 일원에서 '광주은행 지역사회봉사단 쓰담달리기(플로깅)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6일 밝혔다.
‘쓰담달리기’는 조경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인 ‘플로깅(Plogging)’의 순우리말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대학생 홍보대사가 소속된 30여명의 광주은행 지역사회봉사단은 지역민과 환경보호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광주천변 인근 시민산책로를 돌며 환경 정화활동을 펼쳤다.
또 광주시 '시민참여형 광주천 가꾸기'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 광주은행 특별관리구역에 조성된 꽃길 제조작업과 물주기 등 경관개선 활동을 함께 하며 지역민들이 자주 찾는 광주천 산책로 정비에

힘을 보탤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곳곳에 선한 영향력이 전파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함께 솔선수범할 것”이라며 “더불어 지역민과 함께 동행하는 100년 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ESG 리딩뱅크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전 임직원이 소속된 광주은행 지역사회봉사단은 지난 2006년 창단돼 분기 1회 이상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고금리에 돌아온 5만원권...환수율 역대 최고

올 상반기 발행 대비 77.8% 기록

코로나19 사태 직후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던 5만원권 지폐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화폐 수급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만원권 발행액은 약 10조원, 환수액은 7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발행액 대비 환수액의 비율인 환수율은 77.8%를 기록, 2009년 6월 5만원권 발행이 시작된 이후 상반기 기준 가장 높은 환수율을 보였다.
환수율이 높다는 얘기는 화폐가 시장에서 활발히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만원권 환수율은 2009년 최초 발행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17~2019년 50~60%대에 이르렀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대면 거래가 감소, 경제 불확실성에 고객권을 확보해두려는 수요가 늘면서 2020~2021년에는 10~20%대까지 곤두박질쳤다.
이후 지난해부터 방역규제가 완화, 소비가 다시 확대되면서 환수율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환수율 증가에 속도가 붙었다.
시중은행 금리가 오르게 되면서 고객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예·적금 상품에 가입해 금리 이익을 취하는 게 유리해지면서 장롱에 잠들어있던 5만원권이 은행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통화 긴축을 이어간 미국 등 다른 주요국에서도 고객권의 환수율을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금리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올해 연간 5만원권 환수율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노란우산 삶의 현장 사진 공모전

‘지금 이 순간’ 주제...10월까지 접수

중소기업중앙회는 ‘제3회 노란우산 삶의 현장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일과 삶의 현장 ‘지금 이 순간’을 주제로 디지털 사진 작품을 공모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라면 누구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에서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하다. 접수 마감은 오는 10월 31일이다.
출품된 작품 중 심사를 거쳐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10명 등 총 50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을 비롯해 총 281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수상 작품은 여의도 중기중앙회 1층에 2주간 특별 전시되고, 노란우산공제 홍보를 위해 활용된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소상공인들과 함께 성장해왔다”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순간을 살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모습을 알리고, 이들을 응원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

■ 로또복권 (제 1079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4	8	18	24	37	45	6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712,329,417	9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47,864,637	85
3	3개 숫자일치					1,266,655	3,212
4	4개 숫자일치					50,000	145,773
5	3개 숫자일치					5,000	2,344,700